

조비경농장학재단, 장학증서 전달

우수농과대학생 14명에 총 1억5천만원, 2006년부터



(주)조비와 (주)경농이 지난 2004년 공동 설립한 조비경농장학재단(이사장 이병만)이 지난 2월 18일 서울 서초동 조비 본사에서 제5기 조비경농 장학증서 수여식을 갖고 올해 선발된 전국 14개 우수농과대학 장학생 14명에게 총 1억5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각 대학교로부터 추천받은 우수농과대학생 중 장학금선발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이날 선

발된 조비경농장학생들에겐 2010, 2011년도 2년간 등록금 전액이 지원되는 한편 졸업 후 조비, 경농 입사 시에는 가산점도 부여받게 된다.

농업기초학문 발달과 우수인재 육성을 목표로 지난 2004년 설립된 조비경농장학재단은 올해까지 5년간 전국 우수농과대학생 약 70여명을 선발, 지원 장학금 규모도 약 6억원에 달한다.

이병만 이사장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여러분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이끌 주인공이며,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말하고 “농업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는 큰 꿈과 높은 목표를 가지고 한국농업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국가의 기둥으로 성장해 주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2010하작물 농약품목등록시험 설계 심의회」 개최

독성 881약종, 잔류성 923항목, 약효·약해 648항목 심의



올해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등록시험을 위한 「2010 하작물 농약품목등록시험 설계심의회」가 지난 2월 17-18일 양일간 aT센터에서 분야별로 개최됐다.

심의위원 및 시험기관 시험담당자, 업계관계자 등 약 2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날 독성 및 잔류성에 대한 설계심의회에서는 신뢰성 재고를 위한 공통적인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먼저 독성시험 설계

심의로 급성 경구 및 경피 각 110약종, 피부 및 안점막자극성 각 109약종, 피부감작성 109약종, 잉어 108약종, 미꾸리 62약종, 물벼룩 유영저해시험 108약종, 미꾸리 야외포장시험 2약종, 꿀벌 접촉시험 10약종, 꿀벌 섭식시험 17약종, 꿀벌 엽상잔류시험 27약종에 대한 심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 또 작물 잔류 741항목, 토양잔류 69항목, 수중잔류 113항목에 대한 잔류설계심의회에서는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잔류시험의 중요성을 감안, 설계 및 시험이 철저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

이튿날인 18일에 열린 약효·약해시험을 위한 설계심의회에서는 살균제 236항목, 살충제 258항목, 제초제 140항목, 생장조절제 14항목 등 총 648항목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동부하이텍, 신물질 제초제 '메타미포프' 첫 수출

중국 진출로 글로벌 비즈니스 본격 시동, 해외 매출확대 기대

동부하이텍(사장 차동천)이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신물질 제초제 '메타미포프(Metamifop)'가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 진출했다.

동부하이텍과 한국화학연구원이 공동으로 개발한 신물질 제초제로서 뛰어난 약효와 안전성, 사용범위 등을 인정받아 지난해 지식경제부의 '대한민국 10대 신기술'에 선정된 바 있는 '메타미포프'는 기존 약제 사용량의 1/3만으로도 제초 효과가 뛰어나 농가의 일손 부담을 줄여주고 독

성이 낮아 매우 안전하며 잡초 잎에 뿌리거나 토양에 처리하는 방식 모두에 사용이 가능하다.

이미 미국, 중국, 유럽, 인도 등 15개국에서 '메타미포프'에 대한 물질특허 등록을 완료했으며 이번 중국 수출을 시작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본격화한다고 밝힌 동부하이텍은 또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주요 벼 재배국가 진출이 가시화된 상태며, 향후 북미와 유럽 등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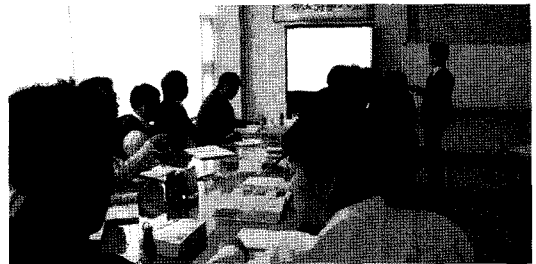
농진청, 국제수준의 '농약안전성 평가체제' 구축 2월, 농약전문위원회 연구위원제도 본격 시행

농약 안전성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제적 수준의 평가체제 구축을 위한 '농약전문위원회 연구위원제도'가 2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이를 위해 지난 2월 1일 농약의 이화학적 평가분야 1명, 생물학적 평가분야 1명, 인축·생태독성 평가분야 3명, 작물·환경 잔류성 평가분야 3명 등 모두 8명의 농약전문 연구위원을 위촉했다.

지난 5년간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농약 안전성 평가건수는 농약원료 64종, 농약품목 1,637개, 직권 품목 670개이며, 분야별 안전성 평가항목은 이화학적 4, 인축독성 18, 생태독성 8, 작물잔류 2, 환경잔류 7, 생물활성 6 등 모두 45개로 매우 다양하다. EU와 미국은 안전성 재평가를 통해 지난해 각각 697종과 256종의 농약에 대해 등록을 취소했고, 농촌진흥청은 현재 이들 농약 중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158종에 대해 재평가 중이다.

동방아그로, 「2010지점 순회교육」 실시



동방아그로(대표이사 염병만)는 지난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전 지점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2010지점 순회교육」을 실시하였다.

각 지역을 순회하며 지점에서 활동하는 영업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금번 교육에서는 농협계통 신청을 마감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중요한 단계임을 감안, 제품전반에 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기술교육을 전수함으로써 전문적인 영업사원으로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심도있게 진행되었다. 교육에 참여한 직원들은 격의 없는 열띤 토론을 통하여 2010년을 동방의 해로 만들기 위한 열정을 보였다.

동방아그로측은 “꾸준한 기술교육을 통하여 제품

바이엘, 새로운 포장용기 잇달아 출시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바이엘 크롭사이언스 (주)(사장 요그 레바인)가 편리하고 안전한 농약 사용을 바라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포장 용기를 출시했다.



으며, 뚜껑 밑에 있는 플라스틱 고리가 떨어지지 않아 더욱 편리하게 제품을 희석동이나 살포기에 따를수 있고 뚜껑이 커져 장갑을 끼고도

한 번에 쉽게 열 수 있다.

바이엘은 지금까지 소비자들이 농약 제품을 사용할 때 제품의 개봉, 라벨, 계량, 희석, 보관 등 여러 면에서 많은 불편함을 겪어왔던 점에 착안하여 액상용기의 경우 뚜껑의 커터(날)가 새롭게 바뀌어 장갑을 끼고도 안쪽에 있는 은박지를 더욱 쉽고 안전하게 개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병 지름이 넓어져 제품을 따를 때 약이 튀지 않

라벨의 경우 글자가 더욱 커져 사용량, 희석배수, 적용대상, 혼용 등 필요한 정보를 보다 편하게 읽을 수 있으며, 재질 또한 일반 종이 아닌 합성수지 재질과 자외선 차단 잉크를 사용하여 물 묻은 장갑에도, 강한 햇빛에도 쉽게 상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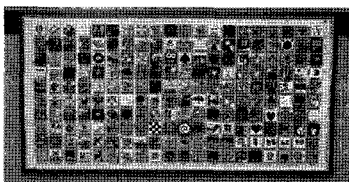
수화제 포장과 제품 박스 역시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정보와 선진기술, 시장상황 등을 숙지시켜 보다 전문화 된 대농업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고 고품질 작물보호제 보급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농업지킴이'를 표방한 회사의 전통에 맞는 태극문양, SG의 캐릭터 '삼공이'와 새로운 한국삼공 CI 등이 인기 소재로 등장했다.

한국삼공, 이색 작품 선배

창사 42주년을 맞이한 SG 한국삼공(대표이사 한태원)이 이색 기념작품을 제작했다.



2010년의 염원을 담아 한국삼공 전 임직원

이 정성들여 만든 이번 작품은 모든 작품을 8X8cm 나무 캔버스에 담아 만든 종합작품으로 본사 1층 로비에 설치하였다. 작품의 면면을 살펴보면 경인년 호랑이해에 걸맞게 호랑이를 모델로 한 작품이 다수이며 '대한민국

한국삼공, 「2010상반기 영업전략회의」 개최



한국삼공(대표이사 한태원)은 지난 2월 17-18일 이틀 동안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2010상반기 영업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2009년 농업시장 이슈 및 영업실적 평가, 마케팅 팀의 시장분석, 외부강사 초청 강연 순으로 진행된

한국삼공, 창사 42주년 기념식 가져

2. 2 수원공장서, 새로운 비전 선포 및 기업이념 발표

한국삼공(주)(대표이사 한태원)가 창사 42주년을 맞아 지난 2월 2일 수원 공장에서 본사, 연구소, 공장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갖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삼공은 지난해 10월 새로운 회사 CI 변경 발표에 이어 세계가 경쟁하는 시대에 걸 맞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성장하는 기업”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이에 맞는 경영이념을 발표해 제2의 창업을 선언하였다.

이날 새로 발표된 경영이념은 공존·공생·공영이란 과거의 이념을 계승 발전시켜 “창의적 인재중용, 도전정신,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녹색성장 추구”를 제시했다.



기념사에서 한태원 사장은 “세계가 경쟁하는 시대에서의 ‘Clean & Clear 정신’은 조직의 존립을 가능하는 기본”이라면서 “전 임직원이 명심하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독려하고 “올바른 길, 정의의 길은 반드시 이긴다”는 명제를 화두로 제시한 뒤 “국민건강과 농업보국을 위한 기업정신을 기승에 새기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회의는 짧은 일정이지만 서로 격려하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한 활기찬 교육이었다.

이날 마케팅팀 손지명 팀장은 지난 2월 9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의 MOU를 체결한 ‘광고 홍보용 벼논식물 재배방법’에 대해 소개한 뒤 “이번 홍보를 통해 도시민에게 농촌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더 불러 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제이케이, 익산공장 준공식 가져

제이케이(주)(대표이사 고재경)가 지난 2월 23일 전북 익산시 팔봉동에서 임직원과 관련 기관 및 단체, 업계 대표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공장 준공식을 갖고 본격 생산체제에 들어갔다.

이날 준공식을 가진 익산공장은 6,600㎡부지에



3,200여㎡규모로 조성되어 유·액제 제조라인 및 연구 시설과 사무동 등을 갖추고, 제품의 연구 개발 및 생산에 있어 보다 좋은 여건을 확보함으로써 제품 개발 및 생산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제이케이는 그동안 문산토, 바스프, 한국마간 등 세계적 글로벌 농약회사들이 직접 만든 비선택성제초제인 ‘하이로드 액제’와 후기 경엽 논잡초약인 ‘뱃사그람엠60’, 원예용 살균제인 ‘오리우스 유타제’ 등을 비롯한 다수의 우수농약 제품들을 공급해 왔다. 